

하상주보

천주교 성 정 바오로 성당
ST. PAUL CHUNG CATHOLIC CHURCH
Catholic Diocese of Arlington, Virginia

2024년 10월 6일
제2021호

주임 신부: 배하정 다니엘

보좌신부: 이태섭 요한사도

사도 회장: 안민철 미카엘

연령 회장: 홍의훈 요셉 (703 966 8206)

사무실: 703 968 3010

팩스: 703 968 3013

주소: 4712 Rippling Pond Drive, Fairfax, VA 22033

이메일: sthasang@gmail.com

기도로 힘을 얻어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리라.”(묵시 21,5)

“어린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고 그냥 놓아두어라.
사실 하느님의 나라는
이 어린이들과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어린이와 같이
하느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고 나서 어린이들을 끌어안으시고
그들에게 손을 얹어 축복해 주셨다.

(마르 10,14-16)



〈어린이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에밀 놀데

연중 제27주일 (나해)

제 1 독서 창세 2,18-24 | 둘이 한 몸이 된다.

화답송 시편 128(127) | ◎ 주님은 한평생 모든 날에 복을 내리시리라.

제 2 독서 히브 2,9-11 | 사람들을 거룩하게 해 주시는 분이냐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이나 모두 한 분에게서 나왔습니다.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느님이 우리 안에 머무르시고 그분 사랑이 우리에게서 완성되리라.◎

복음 마르 10,2-16 <또는 마르 10,2-12> | 하느님께서 맺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하느님께서 맺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그때에 ² 바리사이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하고 물었다.
³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모세는 너희에게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였느냐?” 하고 되물으시니,
⁴ 그들이 “이혼장을 써 주고 아내를 버리는 것”을
 모세는 허락하였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⁵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너희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모세가 그런 계명을 기록하여 너희에게 남긴 것이다.
⁶ 창조 때부터 ‘하느님께서서는 사람들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⁷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⁸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⁹ 하느님께서 맺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¹⁰ 집에 들어갔을 때에 제자들이 그 일에 관하여 다시 묻자,
¹¹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혼인하면,
 그 아내를 두고 간음하는 것이다.
¹² 또한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혼인하여도 간음하는 것이다.”
¹³ 사람들이 어린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그들을 쓰다듬어 달라고 하였다.
 그러자 제자들이 사람들을 꾸짖었다.
¹⁴ 예수님께서서는 그것을 보시고 언짢아하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어린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고 그냥 놓아두어라.
 사실 하느님의 나라는 이 어린이들과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¹⁵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어린이와 같이 하느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
¹⁶ 그리고 나서 어린이들을 끌어안으시고
 그들에게 손을 얹어 축복해 주셨다.

복음 묵상

“너희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모세가 그런 계명을 기록하여 너희에게 남긴 것이다” (마르 10,5).

지난해 아버지의 장례를 치른 뒤에 행정 복지 센터, 세무사 사무소, 건강 보험 공단 등 여러 곳을 다니며 사무 처리를 하였습니다. 인감 증명서, 가족 관계 증명서, 기본 증명서, 호적 등본, 제적 등본, …, 입양 관계 증명서를 떼라고 하기에 “없으면 안 떼어도 되지요?” 라고 말하였더니 해당 서류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때에 따라 아버지의 혼인 관계 증명서가 필요하기도 하고, 어머니의 혼인 관계 증명서가 필요하기도 하였습니다. 철저히 조사해서 정확하게 미리 서류를 준비하여서 가려고 노력하였지만 처음에는 정말 복잡하였습니다. 그때 저희 가족이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별 필요가 없어 보이지만,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기에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법과 규칙은 점점 많아집니다. 그래서 때로는 왜 이렇게 많은 것을 정하여 놓는지 답답해하기도 합니다.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규정이 생기겠지요. 규정을 정할 때 있던 사람들은 대체로 왜 그런 규정이 있는지를 압니다. 규정이 없어도 잘되어야 하는데 신뢰가 없고 사랑이 없어서 안 되기 때문에 규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규정이 많아지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불안전함이 드러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규정들만 탓할 일은 아닙니다. 이혼장을 써 주라는 규정도 아내를 함부로 버리던 사람들 때문에 허락한 것입니다. 문제는 모세가 아니라 아내를 버리는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규정을 열심히 외우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규정이 없어도, 사랑으로 그 규정보다 더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안소근 실비아 수녀)

성화 해설

“하느님의 나라는 이 어린이들과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어린이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독일의 표현주의 화가 에밀 놀데가 그린 것이다. 그는 강렬한 색채와 화법으로 여러 점의 성화를 그렸는데 이것은 그 가운데 하나이다. 놀데는 이 작품에서 예수님과 아이들이 만나 기뻐하는 모습을 화려한 색채와 거친 붓놀림으로 표현하였다.



〈어린이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에밀 놀데

어린이를 마주보고 있는 예수님께서 한 아이를 자애로운 모습으로 안아 주고 있다. 예수님의 품에 안긴 아이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서 그분과 눈맞춤하고 있다. 그 곁에 있던 아이들도 모두 손을 내밀며 예수님께 자신을 안아 달라며 다가가고 있다. 아이들은 천진난만한 미소를 지으며 예수님을 반기고 있다. 엄마의 품에 안긴 아이도 양팔을 활짝 펼쳐 들고서 예수님께 다가가려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반대편에 있는 제자들은 이 광경을 바라보며 못마땅해하고 있다. 아이들의 해맑은 얼굴과는 달리 그들은 어두운 모습을 하고 있다. 또한 아이들이 입은 붉은색 옷과는 대조적으로 제자들은 어두운 옷을 걸치고 있다. 예수님을 가운데 두고 한 화면에 전혀 다른 두 부류의 사람들이 표현되어 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어린이들을 데려온 사람들을 꾸짖었는데, 그 모습을 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이들을 끌어안고 축복해 주셨다.

“어린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고 그냥 놓아두어라. 사실 하느님의 나라는 이 어린이들과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어린이와 같이 하느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마르코 10,14-15)

예수님께서 어린이들을 끌어안아 주신 것은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가 어린이처럼 나약한 사람들에게까지 두루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난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은 그 어떤 사람도 제외시키지 않는다. 예수님의 이 사랑은 모든 사람을 향하여 있으면서도 특별히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약하고 보잘 것 없는 사람들에게 더욱 쏟렸다....

매 주일 성당을 떠들썩하게 만드는 아이들은 주일마다 우리 성당을 찾아오는 아기 천사들 같다. 아이들의 웅얼거리는 소리도 마치 천사들의 합창처럼 들린다. 아이들의 해맑은 눈과 웃음을 바라보면 왜 예수님께서 그토록 어린이들을 사랑하셨는지 그 이유를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다. 분주했던 주일이 지나가고, 모든 신자가 떠난 텅 빈 성당의 마당을 거닐다 보면 낮에 만났던 꼬마 천사들의 재잘거림이 어디선가 들려오는 것 같다. <정응모 신부의 아름다운 성화 아름다운 인생, 가톨릭신문>

목주 기도 성월

성모 찬송

- 모후이시며 사랑이 넘친 어머니,
우리의 생명, 기쁨, 희망이시여,
- 당신 우러러 하와의 그 자손들이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나이다,
슬픔의 골짜기에서.
- 우리들의 보호자 성모님,
불쌍한 저희를
인자로운 눈으로 굽어보소서.
- 귀양살이 끝날 때에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 뵈게 하소서.
너그러우시고 자애로우시며
오! 아름다우신 동정 마리아님.
-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시어
-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 † 기도합시다.
- 하느님,
외아드님께서 삶과 죽음과 부활로
저희에게 영원한 구원을
마련해 주셨나이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함께
이 신비를 묵상하며
목주 기도를 바치오니
저희가 그 가르침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 아멘.

1 복사단 학생 모집

- 대상 : 첫 영성체 받은 초등학교 4 - 6학년
- 신청 : 10월 6일(일)까지 사무실 / 권용우 스테파노
- 문의 : 권용우 스테파노 (571) 244-0333

2 KoC 월례 회의

- 일시 : 10월 6일(일) 오전 9:30 (B-3)

3 구역 임원 교육

- 일시 : 10월 6일(일) 오전 11:30 (B-3,4)

4 유아세례

- 일시 : 10월 12일(토) 오후 2시
-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소공동체 모임의 날

- 일시 : 10월 12일(토)
- 쉬는 교우들도 인도하여 소공동체 모임에 함께해 주세요.

6 페어팩스 메모리얼 파크 묘지 할인 / 구입 안내

- 일시 : 10월 12일(토) 오전 10시 - 오후 12시
- 장소 : Fairfax Memorial Park Office
- 문의 : 흥익호 요셉 연경희 회장 (703) 966-8206

7 단체부 회의

- 일시 : 10월 13일(일) 오전 11:30 (A-1,2)

8 꼬미시움 월례 회의

- 일시 : 10월 13일(일) 오전 11:30 (하상관 #4,5)

9 본당 미래를 위한 5K 걷기 / 달리기

- 일시 : 10월 19일(토) 오전 8시
- 장소 : Burke Lake Park (Shelter A)
- 신청 : 10월 13일(일) 까지
오전 8시, 10시 미사 전·후 친교실/사무실
- 신청비 : 1인 \$15 / 2인 \$25 /
한 가족 3인 \$30 (아침 식사 제공)
- 문의 : 단체부 김 다니엘 (703) 517-1574

10 성 요셉 아버지 학교 11월 특별 강좌

- 일시 : 11월 3일(일), 11월 10일(일)
오전 11:30 (B-2,3,4)
- 주제 : Well Living & Well Dying
- 대상 : 액티브 시니어와 죽음 준비 교육에 관심 있는
50대 중반 이상의 모든 신자
- 신청 : 10월 6일(일), 10월 20일(일) 8시, 10시 미사 후
- 신청비 : 1인당 \$40 (점심포함) / 선착순 40명
- 문의 : 김 베로니카 (703) 864-1236



Support Hurricane Helene Disaster Relief

허리케인 '헬렌' 희생자를 위하여
온라인 도네이션과
지속적인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온라인 도네이션



공지

성지순례 문의

- 본당 신부도 모르는 성지순례가 있는 듯하여 알려드립니다. 여행사를 통해서 순례를 하시더라도 **모집하고 홍보할 때에는 본당 신부의 허락하에**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 아울러 성지순례를 계획하고 있다면 본당 신부로부터 허락된 순례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미사 전·후 성당 입구에서 침묵을 지켜 주세요

- 성당에서 기도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미사 전·후에 성당과 성당 입구에서 조용히 침묵을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체육관 사용 주의사항 ●

- 체육관 사용 시 일어나는 모든 사고에 대해서 본당에서는 책임이 없습니다.
- 체육관 사용은 지정된 시간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시간은 2시간 이내로 합니다.
- 사용 후 정리 정돈 및 청소가 되지 않으면 사용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사실 자선을 베푸는 모든 이에게는 그 자선이 지극히 높으신 분 앞에 바치는 훌륭한 예물이 된다.” (토빗 4,11)



제10대 배하정 다니엘 주임신부 본당 신부 임명식 미사

- ✦ 일시 | 10월 15일(화) 오후 6:30
- ✦ 집전 | 마이클 버빗지 교구장 주교님

본당 신부 부임 임명식이 있습니다.
참석하셔서 신부님의 임명식을
축하해 주시기 바라며
신부님의 영육간 건강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청합니다.



교중미사 예불봉헌

10/06 이번 주	애난데일 구역
10/13 다음 주	알렉산드리아 구역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2024년 9월 29일(연중 제26주일)

봉헌금	\$ 8,463.00
교무금	\$ 5,270.00
교무금(신용카드)	\$ 3,350.00
감사 헌금	\$ 520.00
온라인 봉헌	\$ 2,445.00
합계	\$ 20,048.00

버지니아 성정바로 성당 제공 KACM TV 하이라이트

Cox Ch. 30, 830,
1030
Fios Ch. 30

- 2024년 10월 10일(목) 오후 5:00 - 6:00
- 2024년 10월 11일(금) 저녁 8:00 - 9:00
- 2024년 10월 13일(일) 오전 6:00 - 7:00

1. 주일 강론 : 배하정 다니엘 신부님
2. 영성특강 :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영성생활”
[부] 전영준 신부님



미사 시간 안내(Mass Schedule)

주일미사	· 8:00 AM · 10:00 AM(교중미사) · 2:00 PM(학생미사) · 5:00 PM(청년미사)
토요일 저녁 주일 미사	· 7:30 PM
월, 목, 토	화, 금, 수
· 6:00 AM	· 7:30 PM · 11:00 AM